



독일, 와인 정보
4년 9/18 기준

다른 나라와 달리 독일은 화이트 와인이 주를 이룬다. 와인 생산국 중에서 독일이 가장 북쪽에 위치한 탓이다. 날씨가 서늘해서 레드 와인용 포도를 재배하기에 적당치 않은 나라. 그래서 독일 와인 생산량의 90% 이상이 화이트 와인이다.

화이트 와인이 주로 생산되다 보니 독일은 다른 나라와 등급 체계도 다르다. 독일에서 가장 좋은 와인은 'Q.m.P'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Q.m.P' 안에서도 당도에 따라 6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가장 낮은 등급인 카비넷부터 슈페트레제, 아우스레제, 베렌아우스레제, 트로켄베렌아우스레제까지, 그리고 나무에 매달린 채 언 포도를 수확해서 만드는 아이스바인은 유명하다.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단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트로켄베렌아우스레제나 아이스바인은 디저트 와인으로 마시기 좋다.

독일의 와인 생산지는 라인강과 모젤강 유역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쾰른 쪽으로 이어지는 방면과 하이델베르크를 지나 남서쪽 지역으로 포도밭들이 자리잡고 있다. 유명 생산지에는 모젤 자르 루에(Mosel-Saar-Ruwer)를 비롯해서 라인가우(Rheingau), 라인헤센(Rheinhessen), 라인팔츠(Rheinpfalz) 등 라인강의 기적을 연상케 할 정도로 라인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다. 주로 재배되는 포도 품종은 리슬링, 뮐러 투르가우, 실바너 등인데, 그 중에서도 고급 와인은 주로 리슬링 품종으로 만들어진다. 상큼하면서도 섬세하고 프루티한 맛의 리슬링 와인. 맥주로 유명한 나라지만 대문호 괴테의 고향에서 온 달콤한 와인도 입에 군침이 돌게 만든다.

독일의 와인 산지는 라인강과 모젤강 유역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라인강의 기적을 연상케 할 정도로 라인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 주로 재배되는 포도 품종은 리슬링, 뮐러 투르가우, 실바너 등인데, 그 중에서도 고급 와인은 주로 리슬링 품종으로 만들어진다.

레드 와인의 경우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삐노 누와를 주요 품종으로 해서 만드는데, 토양에 따라 포도의 성질이 변하듯 부르고뉴와는 다른 유니트한 맛을 낸다.

2000 베른카스텔레 독토르 리슬링 카비넷 (Berncasteler Doctor Riesling Kabinett)

망고와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 향이 화려하게 올라오고, 마치 샴페인 버블이 터지듯 입안에 와 닿는 촉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미네랄 같은 차가움과 열대 과일 같은 화려함이 조화를 이룬 화이트 와인.

신맛이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은은한 단맛이 있다. 여름철에 차갑게 마시면 달콤한 유혹은 더욱 커진다.

1999 키르허하이머 슈바체르더 아이스바인 (Kirchheimer Schwarzerde Eiswine)

첫 인상은 꽃과 열대 과일류의 달콤한 향기가 다양하고 화려하게 풍긴다. 입에 한 모금 머금으면 꿀 향기가 입과 코를 진득하게 누르며 들어온다.

단맛을 주인공으로 삼는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단맛이 너무 강하지 않아서 마시기 편하다. 나무에 매달린 채 언 포도를 수확해서 만드는 아이스바인은 디저트 와인으로 마시기 좋다.

1997 실로스 폴라즈 리슬링 카비넷 (Schloss Vollards Riesling Kabinett)

실로스 폴라즈는 8백년 전통의 오래된 포도원이고, 리슬링은 독일을 대표하는 포도 품종으로 카비넷 와인은 싱그러움이 넘친다. 과일 향이 풍부한 향기는 맛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포도 열매의 싱싱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상큼함이 우러나면서 마시기 적당할 정도로 달콤한 와인, 산뜻한 느낌이 강해서 누구나 무난하게 마시기 좋다.

트리텐하이머 아포테케 리슬링 아우스레제 (Trittenheimer Apotheke Riesling Auslese)

독일에서 가장 거대한 와인 생산지 중 하나인 모젤 자르 루에 지역의 전형적인 맛이 잘 살아있는 화이트 와인. 글라스에서 올라오는 화려한 향기는 과일들의 상큼함을 잘 드러내며 맛 또한 프루티하다. 전체적으로 섬세한 맛이지만 그다지 강하지 않으므로 초보자들이 마시기에도 적당하다. 리슬링 포도의 맛이 경쾌하게 살아나는 화이트 와인, 여름철에 차갑게 마시면 더욱 좋다.

1997 상크트바이트 플라인트알하임 (Sanktveit Fleintalheim)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대표적인 품종인 뽀노 누아를 주요 품종으로 해서 만든 레드 와인. 토양에 따라 포도의 성질이 변하듯 부르고뉴와는 다른 유니크한 맛을 낸다. 축축한 대지의 느낌이 전해지며 가벼운 고혹미도 풍기는 와인. 뿌리와 흙 냄새, 자갈 냄새 같은 분위기로 대지의 느낌이 강하다. 꽃의 뿌리를 연상케 하는 약간의 타닉함이 느껴지면서 맛의 무게감도 적당하다.

도른펠더 에버스타트 (Dornfelder Ebersta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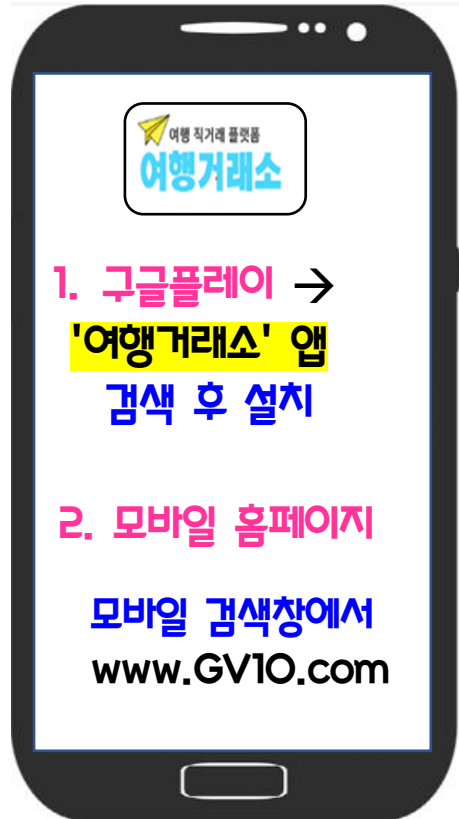
독일에서 보기 드문 레드 와인 중 하나. 글라스를 들여다보면 붉은 빛깔이 짙게 드러나며, 딸기와 붉은 베리류의 과일 향기가 지배적으로 묻어난다. 하지만 화려한 향기에 비해 맛은 주스처럼 달콤한 편으로 다른 나라 와인에서는 보기 드문 특이한 맛이다.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와인으로 상온에서보다 약간 더 차갑게 해서 마시는 것이 제격이다.

도른펠더 에버스타트 (Dornfelder Eberstadt)

독일에서 보기 드문 레드 와인 중 하나. 글라스를 들여다보면 붉은 빛깔이 짙게 드러나며, 딸기와 붉은 베리류의 과일 향기가 지배적으로 묻어난다. 하지만 화려한 향기에 비해 맛은 주스처럼 달콤한 편으로 다른 나라 와인에서는 보기 드문 특이한 맛이다.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와인으로 상온에서보다 약간 더 차갑게 해서 마시는 것이 제격이다.

출처 : 주 본 한국 영사관 (040918)

갤럭시 폰에서



모바일 검색창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www.GV10.com

-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
-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
-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
- 현지 생생정보
-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
- 맞춤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세요 !!

아이폰에서

